

전국 산재사망 줄었는데 전남광주는 70% 급증

을 상반기 41명 숨져…전년 대비 17명 증가
노동단체 “소규모 사업장 상시 기술 지원을”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모두 4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14명, 전남 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광주 8명·전남 16명)보다 17명(70.8%)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명, 동구 1명 순이었다. 광주 지역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서 올해 14명으로 75% 증가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상반기 27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보다 11명(68.8%) 늘어난 수치다. 특히 광양시와 여수시의 증가 폭이 컸다. 광양시는 올해 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명보다 6배 늘었으며, 여수시는 4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2배 증가했다. 영암군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순천시·화순군·영광군에서 각각 2명이 숨졌으며, 나주시·담양군·구례군·고흥군·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서도 각각 1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추락과 질식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장성군 백암사역 역사 증축공사 현장에서는 승강장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지난 4월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영암 대불산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를 기리는 49재를 열었다.

사진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채광창을 밟고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2월 24일에는 영암군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사 숨졌다. 동료 작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B씨는 당시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전동 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단체들은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 3월 18일과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와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여수지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7곳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벌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청과 지자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명보다 4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96명, 기타의 사업 70명, 운수·창고·통신업 22명 등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61명, 부딪힘 59명, 끼임 36명, 화재·폭발·폭염 28명, 물체에 맞음 27명, 기타(감전·절단·의사 등) 25명 순이었다.

노동단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기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작업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8	달달 11:05
☀️	예보 17:58	달달 20:32



광주	☀️	8~24
목포	☀️	10~22
여수	☁️	9~22
순천	☀️	9~23
구례	☀️	8~24
광주	☀️	8~23
전남	☀️	11~23
전남	☀️	15~22
전남	☀️	8~23
전남	☀️	9~22

목포	미물(고)	04:20 / 17:09
여수	썰물(저)	09:33 / 22:12
여수	미물(고)	11:24 / 23:11
여수	썰물(저)	04:41 / 17:28

호남선 KTX, 명절마다 최대승차인원 초과 운행 코레일 “무단 탑승객들로 인해 현장 통제도 어려워”

호남선 KTX 열차가 명절기간에 최대 승차인원을 넘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였던 2월 17일 오후 1시 43분 목포역에서 출발한 KTX 420호 열차의 탑승인원은 1102명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날 오후 1시 3분 여수 EXPO역에서 출발한 KTX 512호 열차의 탑승 인원은 108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레일이 수요 집중 시 적용하는 자체 최대 승차 인원 기준인 1078명을 초

과한 수치로, KTX 차량의 설계상 최대 승차 인원(1133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승차 기준 초과 현상은 매 명절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10월 6일 오후 12시 9분 여수 EXPO역에서 출발한 KTX 582호 열차의 탑승인원도 1079명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 발매 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나 표 없이 무단 탑승하는 암묵 승객들로 인해 현장 통제에 한계를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만 8866건에 달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지리산 성삼재 도로, 12월 10일까지 평일 차량 통제 시암재~성삼재 1.4km 구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지리산 성삼재 방향 도로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 오는 12월 10일까지 평일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14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따르면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성삼재 방향 도로 가운데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휴게소 1.4km 구간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이번 통제는 차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이

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제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이 기간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차마와 건설기계의 통행이 제한된다.

탐방객들은 평일과 주말의 통제 여부를 확인한 뒤 산행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택 동구청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1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열린 '구청장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서 임택 동구청장이 시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제11회 광주서창역새축제, 오늘 공연형 개막식

소리·사람·바람·빛 활용 가을밤 선사

제11회 광주서창역새축제 개막식이 자연과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선보인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따르면 15일 영산강변 서창역새밭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은빛 역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기존의 형식적인 개막 행사에서 벗어나 소리·사람·바람·빛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공연형 개막식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해 질 녘인 오후 5시, 축제의 이야기를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아카펠라 공연 ‘역새의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을의 정취를 전하고 ‘술과 사람이 만나다’를 주제로 한 만남의 시간에는 내빈 소개와 환영사, 축사가 자연스레 이어진다. 이후 무용단인 선보이는 ‘역새의 바람’은 바람에 일렁이는 역새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을 가을의 감성 속으로 이끈다.

개막식의 백미는 ‘함께 밝히다’ 점등 퍼포먼스다. 무용단이 지난 10회의 축제를 상징하는 등불 10개를 밝힌 뒤 11번째 달의 등에 빛을 밝히며 서창역새축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광주서창역새축제는 18일까지 영산강변 서창역새밭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0년의 소중한 추억 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밝히고 시민 모두가 가을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나누는 서창역새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놀면서 생태탐방”…무등산 화암야영장 조성 본격화

무등산국립공원에 가족 단위 놀이시설과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갖춘 화암야영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심과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탐방·휴양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화암야영장 조성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암동 380~1번지 일원 3만7792㎡(1만 1432평) 부지에 추진된다.

주요 시설은 야영지 47동과 관리동 1동, 복합동 1동, 산책로 등이다. 사업 규

2028년까지 160억 투입…북구 화암동 일원 3만여㎡ 규모
야영지 47동·전망대·숲속쉼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예산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야영장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류·휴식 공간과 다양한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 속 휴식을 즐기는 ‘감성 야영장’, 넓고 쾌적한 독립형 공간을 갖춘 ‘포근 야영장’, 체험·편의시설을 마련한 ‘힐링 야영장’을 기본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터를 중심으로 카라반 영역을 배치해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지형의 높은 단차를 활용한 전망대와 숲속쉼터도 조성한다.

평두메습지와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제4수원지~화암야영장을 잇는 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워크숍, 캠프스쿨, 별 관찰, 농촌

마켓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5년 1월 대상지 검토·선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기본·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6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야영장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이 고시됐다.

현재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관련 인허가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4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화암야영장이 문을 열면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친화적 여가공간이 확충돼 무등산국립공원의 탐방서비스 향상은 물론



무등산국립공원 화암야영장 사업대상지 전경.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화암야영장을 무등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탐방·휴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가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